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35~46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35~46

일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고찰: 행정부처간의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주성택(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오정수*(단국대학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1950년에는 4.9% 수준에 불과했으나 1970년에는 7.1%로 고령화 사회, 1994년에는 고령인구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3년 후인 200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최근 내각부(內各部, 2019)에서 발표된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 2,644만 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3,558만 명으로 총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28.1%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장수국가로 불리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의하면 일본인의 건강수명은 2016년에는 남성이 71.19세, 여성이 74.21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본인의 평균수명(남성: 81.25세, 여성: 87.32세)은 향후에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

림 남성은 약 10년 간, 여성은 13년 간 건강수명보다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하지 않은 채 여생을 보내야 한다. 오랜 기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냄에 따라 개호¹⁾ 수요의 확대, 의료비의 증대 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 대비 2018년의 의료비는 약 3천억 엔 증가한 42조 6천억 엔으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33만 7,000엔으로 약 4,000엔 늘었다(厚生労働省, 2019). 연령별 의료비를 살펴보면 75세 미만이 22만 2,000엔인데 반해 75세 이상은 93만 9,000엔으로 이 격차는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25년에는 단카이세대(団塊世帯²⁾)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되며, 이때 후기고령자인구는 약 2,200만 명으로 의료와 개호 등의 사회보장비의 급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 1) 개호라는 용어는 영어로 care이고, 특히 long term care에 해당하며 그 대상에 신체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케어를 의미한다.
- 2)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핵심어: 건강 포인트제도, Fun + Walk Project,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 e-mail: ysoh@dankook.ac.kr

누구나 스포츠를 적절하게 지속함으로써 생활 습관병의 예방 및 개선과 개호예방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늘려 의료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적 대응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서의 규칙적인 운동, 체중감소, 영양증진, 스트레스 관리, 금연 등의 건강행위는 건강한 상태를 증진시키고 암,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富永, 2006). 노인의 건강은 노인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이다. 따라서 노년기 질병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신체활동 및 운동을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 조사(2017)에 의하면 운동이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강한 수명 연장을 위한 스포츠 활용이 제안되었고, 이를 근거로 문부 과학성이 책정한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에 스포츠를 통한 건강이 증진되어, 총무성·후생노동성·문부 과학성의 지원 아래, 2014년부터 건강포인트 제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17). 특히, 스포츠청은 2018년부터 국민운동으로서 Fun+Walk Project을 관민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고(厚生労働省, 2019), 기존의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사업에 후생노동성에서 관여하고 있는 개호사업을 연계하여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이 다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김창환, 2011; 김희원, 2014, 노용구, 2016; 김미숙·전상완, 2018)살펴보면 일본의 개호보험과 노인운동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으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Fun+Walk Project, 건강포인트 제도,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등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전 국민의 고령화 대비하여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청과 후생노동성의 사업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체육정책 수립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화 대비 건강증진 정책을 중심으로 첫째, 일본의 노인 스포츠정책 현상, 둘째, Fun+Walk Project, 셋째, 건강포인트제도, 넷째,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등을 고찰하여 한국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내용을 행정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2019年度概算要求主要事項)', 스포츠청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한 사업(スポーツ廳と連携した取組)', 후생노동성과 스포츠청이 연계한 사업(厚生労働省と連携した取組)', '제2기스포츠기본계획(第2期スポーツ基本計画)', '2020년과 그 후 스포츠를 통한 건강 만들기(2020年とその後に向けたスポーツを通じた健

康づくり),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に関する実体調査の結果について)’ 등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고령화 대비를 위한 노인 건강 증진과 관련된 공식문서와 연구보고서 및 논문 자료에 기초한 문헌연구 방법과 행정부처인 스포츠청 웹사이트(<https://www.mext.go.jp/sports>)를 비롯한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index.html>), 총무성(<https://www.soumu.go.jp>), 일본체육협회(<https://www.japan-sports.or.jp>), 문부과학성 웹사이트(<https://www.mext.go.jp>)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II. 일본의 노인 스포츠정책 현황

일본정부는 1961년에 제정된 스포츠진흥법을 50년 만에 스포츠기본법으로 개정하여 2011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문부과학성 대신(장관)이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2015년에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했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청이 설치되었다(スポーツ廳ウェブサイト, 2019).

일본의 고령자 건강증진 정책은 스포츠청과 후생노동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1963년 노인복지법에서 지방공공단체는 레크리에이션 사업의 실시와 노인조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小笠 原正外, 2008). 1972년 노인스

포츠 보급 사업을 통하여 노인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1982년 노인보건법에서 노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제공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년 “고령자 삶의 보람과 건강증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건강복지제(年輪ピック:연륜피크)와 전국 스포츠·레크리에이션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일본 ‘스포츠 마스터즈’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스포츠 애호가 중에서 경기지향이 높은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제전이다(谷藤千香, 2012) 이처럼 일본은 고령자 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고령자에 적합한 스포츠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조성대책에서는 시정촌에 대한 보건센터 정비와 건강검사 충실, 보건사라고 하는 인적자원을 확대하였고, 제2차 국민건강조성대책에서는 건강증진 시설의 추진과 운동 지침의 책정 등 건강 습관의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 제7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국민의 건강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두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2012년에 후생노동성에서 발표된 건강일본 21(제2차)의 중심 과제로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건강수명이 핵심어로 정해졌다(厚生労働省ウェブサイト, 2019).

이 계획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2011년 2월에는 건강수명을 늘리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과 연계하면서 운동이나 식생활, 금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검진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4,146개의 기업이나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격차 축소, ② 생활습관병의 발병 예방과 중증화 예방의 철저화(NCD(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③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유지 및 향상, ④ 건강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사회환경 정비, ⑤ 영양·식생활, 신체활동·운동, 휴양, 음주, 흡연, 치아·구강 건강에 관한 생활습관 개선 및 사회 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8).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은 2017년에 책정되었으며, 이 계획은 스포츠기본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및 스포츠단체 등이 일체화되어 스포츠입국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의 전문에는 「스포츠는 심신의 건강유지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장수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라이프 스타이지에 따른 스포츠 활동 추진을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운동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고령자 체력만들기'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공익재단법인 일본레크레이션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川西正志, 野川春夫, 2013).

또한 일본 정부는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에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 의한 행정 등과 연계한 공익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인증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이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연계·협동하여 고령자 개호예방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 관련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연계하여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Fun+Walk Project와 건강포인트 사업 그리고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운동습관화 촉진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이다.

III. 일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스포츠 정책 사례

1. Fun+Walk Project

일본은 국민 의료비가 40조 엔을 넘는 가운데 스포츠 인구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 의료비의 억제 및 공헌이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없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みずほ情報総研究株式会社, 2020). 이런 가운데 성인이 주 1회 이상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은 42.5%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20대부터 50대의 스포츠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도 '스포츠 실시 상황'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 참여 빈도가 줄어들었거나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일이나 가사가 바빠서」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청은 2017년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인 국민운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내용은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종합상담 및 지원, 권리보호, 포괄적·지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 등이 있다 (<https://www.mhlw.go.jp>).

3) 지역포괄지원센터란 지역주민의 심신건강의 유지

‘FUN+WALK PROJECT’를 국민의 연계를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걷기 편한 복장(Fun Walk Style)으로 통근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의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은 336,665천 엔이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464,957천 엔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スポーツ廳, 2019). 이처럼 일본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보급시키기 위해 시가현 히코네시에서 개최된 ‘현지 캐릭터 박람회 in 히코네’라는 기존 이벤트와의 연계와 TV 이와테 등의 현지 미디어와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스포츠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운동·스포츠를 하는 성인대상(20대~70대)의 비율은 55.1%인데 반해 주식회사박보당(株式會社博報堂, 2019) 조사대상자(20대~50대)에서 FUN+WALK PROJECT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66.4%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가 FUN+WALK PROJECT를 도시권에서 지방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개사) 현지 캐릭터 협회와 연계하여 해당 협회는 전국의 다수의 현지 캐릭터와의 강력한 광고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에서 본 사업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 전체가 걷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5일~18일까지 강화주간인 ‘FUN+WALK WEEK’를 시작하여 비즈니스맨을 위한 편안한 출퇴근 복장 스타일을 소개하는 ‘FUN+WALK STYLE’ 제안 등이 이루어졌

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캠페인 및 이벤트 실시 등을 전개하기 위해 TV, 신문, 잡지, Web 미디어, SNS 등을 통한 보급 계발 등을 통해 ‘FUN+WALK PROJECT’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FUN+HEALTH FESTA는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스포츠청의 건강 분야에 관한 3개성청의 첫 연계 시책으로 히로시마부의 이온몰(AEON MALL) 내에서 실시되었고, "워킹"뿐만 아니라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스포츠청 3개성청의 제휴로 건강증진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FUN+WALK PROJECT 부스에서는 이온몰 워킹의 오리지널 캐릭터의 스티커를 관내에 게시하고 그 스티커를 발견한 참가자에게 오리지널 프릭션 펜을 선물로 제공하고 이온몰 내에서 쇼핑을 하면서 즐겁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FUN+WALK PROJECT에 의해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株式會社博報堂, 2019).

2. 건강 포인트제도

일본에서의 건강증진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조합에 의한 인센티브를 이용한 개인의 예방·건강에 대한 대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5월 후생노동성은 ‘개인의 예방·건강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센티브를 이용한 개인의 예방·건강에 대한 대응의 기본방침이란 나 자신의 건강 만들기에 관심이 낮은 ‘건강 무관심층’을 포함하여 국민이 건강

만들기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이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선택하여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上村一樹他, 2018).

스포츠청(2017)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계속하고 있다」는 사람은 전체 34.1%에 머물러 있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7년에 책정한 ‘스포츠기본계획’에서 성인의 65%가 평균적으로 주1회 이상(연 51회 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사에 의하면 운동을 하는 비율은 51.2%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スポーツ廳, 2017).

또한 정기적으로 행하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습관 중 하나이다. 이것을 습관화하는 일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 운동과 건강수명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로 kanamori et al(2012)의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13,31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요개호인정 리스크(要介護認定リスク)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지역스포츠클럽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참가하는 사람에 비해 ‘요개호인정 리스크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일본에서는 총무성·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의 지원 아래 2014년부터 ‘건강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에 무관심층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6).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 포인트(건강 마일리지) 제도는 국가 전략인 ‘건강수명의 연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의 하나로서 기대되고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건강 만들기에 노력하는 주민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건강 만들기’의 구조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이 되어도 건강하고 누구나가 주체적으로 건강 만들기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건강 포인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운동·건강에 무관심하거나 건강 만들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리 없이 건강 만들기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 포인트”사업이다. 이에 주민의 건강 만들기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 포인트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제로서 의료비 증대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비 삭감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된 과제로서 국민의 건강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지역주민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에는 ‘건강증진법’이 시행되어 2011년부터는 많은 기업들과 연계하여 「스마트·라이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단체·지자체 수는 420개 단체(2012년)에서 4200개 단체(2018년 5월)로 늘어났으며, 지속적으로 단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厚生労働省,

4) 요개호는 개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2018).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목적은 적당한 운동, 적절한 식생활, 금연, 건강검진을 테마로 건강 만들기에 기업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204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9).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건강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 한다.

3.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

문부과학성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일본체육협회에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의 추진 근거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에 제시 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 '생애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스포츠 환경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이는 「전국 각 시·구·정·촌에 최소한 1개의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둔다」 고 명문화하고 있다.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다세대·다연령·다종목·다지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의해 자주적·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그 목적은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경기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富本 靖·堂元 慎也·瀧澤 宣頼, 2015).

제2기(2017년 4월~2022년 3월) 스포츠 기본

계획에서는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등록·인증 등의 제도 정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체육협회, 종합형클럽전국협의회, JSC(Japan Sport Council) 및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하고,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 의한 행정 등과 협동하여 공익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등록인증 등의 제도를 책정한다. 이를 근거로 일본체육협회 및 각 도도부현⁵⁾ 체육협회 등은 관계 단체와 연계하여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의 등록인증 등의 제도를 정비한다(スポーツ庁, 2019). 또 국민, 스포츠단체, 민간사업자, 지방공공단체, 국가 등이 하나가되어 스포츠입국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처럼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스포츠를 통한 건강유지나 인간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관(행정, 기업, 스포츠단체, 대학, 의료기관, NPO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은 사회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스포츠에 참여 인구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체육단체의 노력으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580개의 클럽이 전국에서 육성되고 있다. 일본의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NPO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법인격을 취득한 후 체육관이나 운동시설, 공민관 등을 지정관리 하면서

5) 도도부현(Prefectures of Japan)은 일본의 광역자치 단체인 도(도쿄도), 도(홋카이도), 부(오사카부와 교토부), 현(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있다.

운영 하고 있는 클럽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클럽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연간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교실이나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출범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학교와의 연계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행정과의 연계하여 지역과제(건강증진, 개호예방)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통해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의 활동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포츠청(2018)의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만들기 사업(45.3%), 행정에서 개호예방사업 수탁(7.8%),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연계(7.5%), 의료비 삭감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걸고 실시(3.4%),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대응(3.1%),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개최(2.9%), 특별히 실시하지 않음(48.7%), 기타(2.7%) 등으로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만들기 사업, 행정에서 개호예방사업, 지역포괄지원 센터와 연계한 사업,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사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등을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스포츠廳, 2018). 개호예방사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고령자가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만들어 보살핌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통해 다세대·다연령이 생애스포츠 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일본의 노인 건강증진 정책의 사회적 시사점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증진 관련 정책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관련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간에 연계사업이 요구된다. 현재 노인건강증진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처간에 고령화 대비를 위한 정책들이 연계성이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책의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스포츠청을 중심으로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 관련 정책들을 각 부처간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도 고령화 대비 건강증진 정책들이 부처간 연계하여 추진을 기대한다.

둘째, 고령화 대비를 위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운동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해왔던 개호예방사업을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사업을 통해 재원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도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과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연계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은 스포츠청에서 추진하는 Fun+Walk Project와 후생노동성의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건강 포인트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를 통해서 얻은 포인트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의 부처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들은 20대부터 시작하여 중장년층, 노인층으로 폭넓은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층이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중에서 부처간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스포츠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각 부처에서 발간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청에서 추진하는 Fun+Walk Project와 후생노동성의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건강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다세대·다연령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청과 일본체육협회를 중심으로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해왔던 개호예방사업을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폐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연계하여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존 행정부처간에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건강관련 정책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에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은 후생노동성과 스포츠청, 일본체육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노인 스포츠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 부처간에 정책 사업들을 연계하여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건강스포츠 정책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스포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부처 간에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들을 부처간에 횡단적·종단적으로 정책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제언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화 대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계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비롯하여 고령자 스포츠 정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한일 비교 등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고령화 대비를 위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루 운동량을 측정하여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회사, 통신사들 간에 통합 연계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학문적 담론 등의 후속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숙, 전상완(2018). 고령화를 대비한 일본 노인체육 고찰을 통한 시사점. **한국스포츠학회지**, 16(3), 105~116.
- 김창환(2011). **지역사회 노인운동 정책수립**. 보건복지부.
- 김희원(2014). **한국과 일본 고령자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노용구(2016).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 KISS(한국스포츠개발원).
- 上村一樹·駒村康平·久野識也(2018). 健康ポイント制度における利用者の可能性、経済政策ジャーナル, 15(1). 39-54.
- 川西正志·野川春夫(2013). **生涯スポーツ実践論—生涯スポーツを学ぶ人たちに**. 日本: 市村出版(改訂3版).
- 株式會社博報堂(2019). **平成30年度「スポーツ人口拡大に向けた官民連携プロジェクト**.
- 小笠 原正·塩野 宏·松尾 浩也(2008). **스포츠六法 2008**. 日本: 信山社.
- 厚生労働省(2016). **個人の予防健康づくりに向けた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る取り組み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厚生労働省ウェブサイト. www.kenkouinippon21.gr.jp(2020년 6월 23일 검색)
- 厚生労働省(2019. 9. 26). press release.
- 厚生労働省(2019). **スポーツ庁と連携した取組**
- 厚生労働省(2018). **厚生労働白書 (平成29年度厚生労働行政年次報告) —障害や病氣などと向き合い、全ての人が活躍できる社会に一**.

- 스포츠廳(2018). **平成30年度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に関する活動状況調査.**
- 스포츠廳(2017). **スポーツの実施状況に関する世論調査.**
- 스포츠廳(2019). **2019年度概算要求主要事項**
- 스포츠廳(2019). **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における登録認証制度の整備について**
- 스포츠廳ウェブサイト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ports/mcatetop05/list/1396542.htm. (2020년 6월 23일 검색).
- 總務省統計局(2019): (<https://www.stat.go.jp/data/jinsui/new.html>). (2020년 7월 3일 검색).
- 内各 部 (2 0 1 9) . **高 齡 社 会 白 書** .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index-w.html> (2020년 6월 23일 검색).
- みずほ情報總研究株式會社(2020). **スポーツ人口拡大に向けた官民連携プロジェクトアプローチ展開.**
- 文部科學省(2017). **スポーツ基本計画.** http://www.mext.go.jp/a_menu/sports/plan/ (參照日 2017年 2月 7日)
- 文部科學省 (2016) . **平成29年度概算要求主要事項 < スポーツ庁 >.** http://www.mext.go.jp/sports/a_menu/kaikai/detail/_icsFiles/afeldfile/2016/08/30/1376595_1.pdf (參照日2017年 2月 7日).
- 谷藤千香(2012). **マスターズスポーツの現象と課題.** *千葉大学教育部研究紀要*, **60**, 365-371.
- 富本 靖・堂元 慎也・瀧澤 宣頼(2015). **日本における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現象と課題**
- 富永柘民(2006). **生活習慣と健康づくりと生活習慣病の予防**‘生命健康科学研究紀要’(2) 21-27.
- Chalip, L.(1995). **Policy Analysis in Sport Management,** *Journal of sport management*, **9**(13).
- kanamori Satoru, Y. Kai, K. Kondo, H. hirai, Y. Ichida, K. Suzuki, I. Kawachi(2012). **Participation in Sports Organizations and the prevention of Functional Disability in Older Japanese: The AGES Cohort Study,** *17*(11), 1-6.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Health Promotion Policy to Prepare for Aging in Japan: with a focus on connected projects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administration

Ju, Soung-Teg(KyungHee University Prof) •

Oh, Jeong-Soo(Dankook University Pr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stablishment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to prepare for the aging of Korea, focusing on the contents of projects promoted by the ministries and agencies among the elderly sports policies in Japan.

The findings show that Japan's health promotion policies based on sport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Fun + Walk Project by the Bureau of Sports was connected to the Smart Life Project b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 the aspect of preventive medicin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s. Each local government pushed forward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multiple generations and age groups in a systematic manner by introducing the Health Point system. Second, comprehensive community sports clubs provided supports and nurturing within the community so that individuals of multiple generations and age groups could participate in sports. They were especially commissioned to carry out the care prevention project b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Finally, various paths were utilized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administratio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y projects related to the health of the elderly that used to be managed in a closed way by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These findings imply a need for South Korea to push forward specific policies for elderly sports via various paths under the goal of promoting health among multiple generations and age groups in the aspect of preventive medicine by connecting projec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ocal governments, and Korea Olympic Committee.

Key words : Health Point System, Fun + Walk Project, Comprehensive Community Sports Clubs